

GIST아카데미,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가' 11월 조찬포럼 개최

- 성균관대 박영택 교수, 창의적인 발상 방법 제시·사례 소개



▲ GIST아카데미 11월 조찬포럼 개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아카데미는 11월 29일(월)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주제로 11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박영택 교수가 '창의적인 생각의 공통적인 패턴'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박영택 교수는 'Smart Connection' 개념을 설명하며 창의적인 발상 방법 여섯 가지를 소개했다. Subtract(제거), Multiplication(복제), Attribute Change(속성변경), Reversal(역전), Task unification(용도통합), Connection(연결)을 제시하며 그중 일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디어는 발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제조 경쟁력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20세기에서 창조력이 중요한 21세기로 넘어왔다"며 "창의적 사고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사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IST아카데미 조찬포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의식혁신과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IST아카데미는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2010년 개원), GIST 기후변화아카데미(2016년 개원) 2개의 과정을 운영 중이며, 각 분야의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 글로벌 경영전략, 교양감각 등을 함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